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에 담겨진 어용적의미

장 성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언어생활은 언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교제활동이며 사회생활의 한 분야입니다. 언어를 기본수단으로 하는 언어생활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은 그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어에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많은 부름말들이 있으며 이것은 항상 구체적인 환경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그러한 부름말들로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들수 있다.

사람들은 대화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각이한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게 되며 상대방을 부르는 사람은 그 대상의 특성에 맞게 부름말을 선택하여 대화의 첫 시작을 떼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제는 실지 부름말로 시작되며 그 부름말의 친절성의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존경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관계도 나타나게 된다.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은 성, 부칭, 이름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이루고있을 때 구성요소들은 자기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우선 부칭은 일부 의미들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통시대적징표로서 로씨야민족에게 있어서 가부장제의 흔적으로 되어 부칭을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에 따라서 규정한다는것이다.

다른 편으로는 만일 이름과 성이 일치하는 경우 부칭이 마치도 보충적인 구별적표식으로 되는듯 하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매우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군한다.

례: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

Алексе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Толстой

부칭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사회적성숙정도의 표현형태이다. 만일 어린 소년이나 소녀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하는 물음에 자기의 이름과 부칭으로 대답하면 이것은 우스운 일로 되고있다.

또한 성도 일부 의미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성이 사람의 성장표현 즉 그가 사회의 한 성원으로 된다는것을 나타낸다는것이다.

례: Неужели же это тот самый Фектистка, на тощей спине которого мы когда-то впервые разглядели знаки различия между людьми, делающими вещи и имеющими их? У него теперь фамилия была! (정말 이 사람이 언제인가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가지는 사람들사이의 차이점을 처음으로 연약한 잔등을 통해 알아본 바로 그 펙찌쓰뜨까인가? 이제는 그에게 성이 있구만!)

또한 이름도 성과 부칭과는 달리 자기의 특징을 가진다.

그것은 로씨야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류행에 따를수도 있고 부르기 편리하게 또는 종교적규범, 민족적전통, 사회생활의 사변들에 따라 지을수도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름의 인기률은 고정되지 않으며 대체로 10년에 한번은 류행적인 이름들이 갱

신되곤 한다.

최근에 로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남자들의 이름은 Андрей, Никита, Максим, Александр이고 여자들의 이름은 Анастасия, Дарья, Ксения이다.

류행되는 이름은 한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데서 일련의 불편한 점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한 학급에 다섯명의 Даша와 여섯명의 Катя가 있으면 서로 구별하여 부르기
에 불편한것으로 된다.

개별적이름은 공식적인것과 일반적인것 그리고 애칭으로도 존재한다.

례: Анна, Аня, Анюта, Аннушка, Анечка, Анютка, Ася, Нюра, Нюша, Нюся
로씨야사람들은 이름과 부칭, 성을 리용하여 여러가지로 부르는데 이것은 로씨야사람
들의 이름선택이 아주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만일 이름을 문자 И로, 부칭을 О로, 성을 Ф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많은 안들이
생겨날수 있다. 즉 Ф, И, О, ИФ, ФИ, ИО, ФИО, ИОФ이다.

실례로 한사람에 대하여 Саша, Саня, Санька, Шурка, Алик,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Михалыч, Александр Сидоров, Сидоров 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Сидоров 등으로 부르게 된다. 이때 나이와 사회적직위, 친척관계, 대화상
대자의 감정상태 그리고 대화와 교제목적 기타 요인들이 작용하는 환경이 고려되게 된다. 특
히 애칭은 가까운 관계, 친척관계, 이성관계와 아이들사이의 관계들에 의하여 불리워진다.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은 그 쓰임에서 어용적의미를 담고있다.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의 어용적의미는 우선 사람의 명예와 명성의 징표를 표현하는데
서 나타난다.

많은 경우 로씨야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을 부르는것은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된다. 그
러므로 이름과 부칭을 부르는것은 나이든 사람과 가까운 관계가 아닌 대상에게만 한한
문제로 된다.

례: Шариков позвал доктора Борменталья: «Борменталь!»

-- Нет, уж вы меня по имени и отчеству, пожалуйста, называйте! – отозвался
Борменталь, меняясь в лице. (샤리꼬브는 의사 보르멘탈을 《보르멘탈!》하고
불렀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됩니다. 저의 이름과 부칭을 좀 부르십시오!》)

그러나 성만 부르는것이 공식적인 례의표시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선생이 학생을 부를 때,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근무중 직급이 낮은 사람
을 부를 때 등의 경우로서 엄격한 색채를 띠게 된다.

오늘날 부칭으로만(Петрович, Павлович, Ивановна) 부르는것이 낡은 사회의 흔적
으로 보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수 없다. 여기에는 흔히 중년인 사람에 대한
일정한 존경의 뜻이 있을뿐아니라 격식없는 관계가 존재한다. 일정한 사회적계층에 속하
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생동한 부름말로 된다.

례: Один очень рослый родственник Серегин, дядя Егор, наклонился к Сереге
к уху, спросил:(썰료가의 한 친척별이 되는 키가 몹시 큰 삼촌 예고르가
썰료가의 귀에 대고 물었다.)

-- Как ее величать?(그 녀자의 성함을 어떻게 부르오?)

-- Никаноровна. Клавдия Никаноровна.(니까노로브나입니다. 클라브지야 니까
노로브나입니다.)

우의 실례에서 쎄르게이는 처음에 부칭으로만 불렀지만 다음에는 인차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름과 부칭을 함께 불렀다.

로씨야의 젊은 사람들속에서는 부칭이 방언처럼 그리고 이름과 성에서 자주 유도되는 별명처럼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

실례로 Никодимыч는 Никодимов라는 성에 따라 젊은 사람에게 붙여놓은 별명이다.

쏘련에서는 국가공식인물들을 성, 이름, 부칭을 반드시 다 합쳐서 불렀지만 쏘련이 해체된 다음 두개의 구성요소인 이름과 성으로만 부를수도 있게 되었다.

부칭을 빼고 성과 이름을 부르는것은 서유럽언어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고있다.

실례로 공식적인 문건들에서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омяк》가 아니라 《Сергей Комяк》라고 쓴다.

대화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대화상대자를 이름과 부칭으로 불러야 하지만 그의 부칭을 모르는 경우도 있게 된다. 실례로 《안녕하십니까, 쎄르게이 에... 에... 니콜라예비치.》 혹은 룡담조로 대명사적부칭인 Батькович를 붙여서 《안녕하십니까, 쎄르게이 바찌코비치!》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여기에서 부칭은 단어 батька(아버지)에서 조성되었다.

실지로 언어행위에서는 이름과 성을 결합하여 부르곤 한다.

례: 비교: Реформатский дружил с ним (профессором Петром Савичем Кузнецовым) всю жизнь. Он и Макаев звали Петра Савича Петей, а мы – в знак особой нежности – за глаза звали его Петя Савич.(레포르마쓰끼는 교수 뽀뜨르 썬비치 꾸즈네쵸브와 일생을 친하게 지냈다. 그와 마까예브는 뽀뜨르 썬비치를 뽀썬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그가 없을 때 특별히 부드럽게 그를 뽀썬 썬비치라고 불렀다.)

우의 실례에서 뽀썬 썬비치가 없는 조건에서 다르게 부를수 있으나 여기에는 이름에 대한 어용적특성이 반영되어 그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불렀다.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의 어용적의미는 또한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데서 나타난다.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에 《너》, 《당신》과 같은 부름말이 조화를 이루고있다는것을 고려한다면 어용적색채가 아주 많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당신, 썬샤》 혹은 《너,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와 같은 결합들을 들수 있는데 여기에서 첫번째 부름말은 웃학년학생 또는 대학생에 대한 선생의 표준부름말로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에 대하여 틀을 차리면서 부르는 부름말로도 된다.

두번째 부름말은 서로 잘 아는 어른들과의 반공식적인 교제에서 자주 볼수 있다.

줄임말로 된 이름 특히 이름과 부칭의 첫 문자들을 자주 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실례로 Пётр Фомич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기 동료들속에서는 Пэ Эф라고 부르며 Нина Петровна는 Эн Пэ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수 있다.

례: Надежда Петровна, или «Эн Пэ», как за глаза звали ее сотрудники, считалась работающей в Институте языкознания.(나제쥬다 뽀프로브나 혹은 그의 동료들이 뒤에서 부르는것처럼 엔뽀는 언어학연구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있었다.)

다른 실례로 알렉산드르 월로진의 희곡 《가을철 마라손》에서 한 녀주인공을 Нина

Евлампиевна라고 부르고 그의 경쟁자들은 그를 Эн Е라고 부르는 경우를 들수 있다.

레: --А твоя дочка на кого похожа? – спросила Алла. – На тебя или на Эн Е?((너의 딸이 누구를 닮았니?)하고 알라가 물었다. 《너를 닮았니 아니면 엔예를 닮았니?》)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의 어용적의미는 또한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나타난다.

교제하는 사람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언어수단을 리용하는데서는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 실례로 녀자들은 감정정서가 담겨진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서 그것이 눈에 띄이게 나타난다. 즉 녀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성에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체호브의 어느 한 단편소설에서는 안해가 항상 자기의 남편을 Дымов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부르곤 한다.

레: Ольга Ивановна всегда звала мужа, как всех знакомых мужчин, не по имени, а по фамилии: его имя Осип не нравилось ей.(올가 이와노브나는 모든 아는 남자들을 부르듯이 자기 남편을 항상 이름이 아니라 성으로 부르곤 하였는데 그것은 오씨빠라는 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남성들속에서 자기의 길동무를 성에 따라 부르면 모욕적인것으로 되지만 녀성들속에서는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는 호칭수법이다. 이렇게 표준적인 부름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분위기와 애정관계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레: Он давно был на ты с Антиповой и звал ее Ларою, а она его – Живаго. (그는 오래전부터 안찌빠바를 《야, 자》로 대하였고 라라로도 불렀으며 그 녀자는 그를 쥐바고라고 불렀다.)

생활의 길동무를 성에 따라 부르는것은 언어추세와 많이 관계되는데 지난 세기 20년대에 널리 류행되었다.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의 어용적의미는 또한 직업적특성을 표현하는데서 나타난다.

로씨야사람들의 언어행위에서 애칭과 성을 함께 부르는 현상들도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Татьяначка Ивановна 또는 Белочка Сергеевна를 들수 있는데 이것은 녀성들에 대한 부름말로서 흔히 종업원들속에서 특히 간호원들이나 녀서기들, 판매원들과 회계원들속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일부 로씨야사람들의 이름에는 남자이름과 녀자이름이 같은것도 있다.

레: Евгений – Евгения, Валерий – Валерия, Валентин – Валентина, Александр – Александра

이러한 이름들은 애칭에서 자주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Женя, Валя, Саша, Шура 등을 들수 있다.

어린이들속에서는 이러한 이름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면 그들이(특히 남자애들인 경우) 남성과 녀성에 다 속하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로어교수방법과 내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로어를 정확히 습득하고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어야 할것이다.